

'콘텐츠 왕국' 카카오, 언택트 질주

metro 관심종목 카카오

톡·페이지·TV 등 콘텐츠 다양 서비스 이용자 충성도 강화될 듯

3분기 영업이익 1005억 예상 공격 마케팅 중장기적 긍정적

디지털 금융산업 외형 확장 카뱅-카카오증권 시너지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카카오가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주'가 됐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투, 카카오투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4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6일 35만7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는 2020년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조321억원, 영업이익 100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대비 각각 31.8%, 70% 증가할 전망이다.

견조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페이, 모빌리티, 픽코마(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 등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여파로 시장 컨센서스(1175억원)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공격적 마케팅은 투자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증권사별 카카오 목표주가>

IBK투자증권	49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6만원
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	45만원
하나금융투자	44만원
한화투자증권·DB금융투자	43만원
교보증권·SK증권·키움증권	42만원
유안타증권	41만원
유진투자증권	40만원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고성장 기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는 격'으로서 바람직한 투자의 일환"이라며 "투자 측면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늘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가치악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IBK투자증권이 49만원으로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46만원), 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45만원), 하나금융투자(44만원), 한화투자증권·DB금융투자(43만원), 교보증권·SK증권·키움증권(42만원), 유안타증권(41만원), 유진투자증권(40만원) 등의 순이다. 모두 40만원대로 적정가격을 조정했다.

카카오의 현 주가수익비율(PER)은 86.2배로 미국 빅테크기업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상태다.

증권업계는 카카오의 4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77% 성장해 실적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페이, 내년에는 모빌리티 법인의 흑자전환이 이어져 자회사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나타난 주가 조정은 건전한 흐름"이라며 "양호한 실적 성장에 따라 주가 상승세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사업인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증권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카카오는 기존의 카카오 생태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산업으로 외형을 넓혀나가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펀드는 올해 2분기 순이익 268억원, 상반기 누적 순이익 453억원을 달성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MAU(Monthly Average User)는 1100만명을 넘어서 은행권 모바일 앱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역시 출시 5개월 만에 증권계좌 170만개, 펀드 투자 월 3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투, 카카오투, 게임, 멜론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 카카오 기반 테크핀 서비스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예탁결제원 휴면성 증권투자자산 보관현황>

(2020년 9월 말 기준)

구분	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주식	대금	
보관현황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375억원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실기주과실주식·미수령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에 한하여 집계 (미수령주식의 경우 법인주주는 제외)

예탁원 "664억 휴면 주식 찾아가세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자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0월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실기주,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실기주과실,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 ▲미수령주식,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휴면 금융자산의 주인을 찾아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 찾아가기 활동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자산 찾아가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자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 3028명)다.

/박미경기자

코로나 장기화... 전자의무기록 수요 급증

(EMR)

株라클라의 종목

의료시스템 전문 | 이지케어텍 |

3년 연속 글로벌 EMR 점유 10위권 신규의료정보시스템 상용화 본격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며 '이지케어텍'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 및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며 비대면 진료시스템과 EMR(전자의무기록)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는 첨단 의료장비, 본원, 위성병원 등 모든 병원 시스템을 연결하는 EMR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지케어텍은 국내 대형 병원 EMR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고, 현재 13%인 해외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케어텍은 지난 2001년 서울대학병원이 설립한 의료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최근 3년 연속 글로벌 EMR 시장 점유율 10위권에 든 기업이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10위권 업체 대부분이 미국, 유럽 등 의료 IT 산업 선두주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시장에서 이지케어텍의 파트너십 확대에 의미

<이지케어텍 2020년 대표 수주 현황>

구분	제공서비스	수주 총액	수주 기간
제주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99억6000만원	2021년 8월
충북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136억원	2020년 9월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정보시스템	64억7000만원	2024년 9월
사우디 국가 방위부병원	진단검사의약시스템	300만 달러(약 35억원)	2020년 12월
동국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통합 HIS 구축	108억 2000만원	2021년 4월

/이지케어텍, 리서치알음

를 부여할 만 하다"며 "의료 분야와 ICT 기술의 융화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EMR 시장 또한 연평균 7.1% 상승해 2026년에는 380억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책사업 선정은 이지케어텍의 EMR 시스템을 표준안 기준으로 설정 시 타 EMR 업체 대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국내 FHIR 시장까지 선도할 수 있어 다양한 사업모델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 신규의료정보시스템 상용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이지케어텍은 '헤민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EDGE&NEXT'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일체형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이다.

최 연구원은 "EDGE&NEXT 클라우드는 현재 국내에서 네이비비즈니스 플랫폼(NBP)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2007년부터 이지케어텍과 파트너십을 맺어온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플랫폼 협력이 예정돼 있다"며 "동남아 및 일본 등의 시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부터 해외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리서치알음이 예상하는 올해 이지케어텍의 영업이익은 9억원, 매출은 704억원으로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내년 영업이익은 364.4% 늘어난 44억원, 매출은 5.5% 늘어난 743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646원에 주가수익비율(PER) 50배를 적용한 3만2000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했다.

/박미경 기자

안면인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편리성·보안성 강화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을 비교·검증하는 실명확인 절차로 올해 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은 계좌 인증 또는 상담원과 영상통화로 실명을 확인했다. 계좌인증방식은 인터넷뱅킹의 어려움이 있고, 영상통화방식은 모르는 사람과 영상으로 통화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실명확인이 되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안면인식기술에는 실제본인이 촬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감지(Liveness Detection) 테스트'를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텝스(STEPS)'와 '스마트엠(Smar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NH투자증권 초고액 자산가 위한 PB서비스

NH투자증권은 30억원 이상 자산가와 중소기업 오너를 위한 '프라이빗뱅크(PB)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세무, 부동산 컨설팅, 고객 기업의 종합 금융 솔루션 서비스(기업공개, 증자 등) 등 재무적·비재무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영업전략본부 내에 PB서비스팀을 별도 신설했다. 서비스팀은 각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배치되었으며, 금융상품·세무·부동산·컨시어지(Concierge)와 투자은행(IB) 담당자로 구성했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PB서비스는 재무적인 자문(Advisory)·법인 컨설팅

서비스와 비재무적인 마케팅 서비스로 구분된다. 자문서비스는 상속·증여·절세 등 세무 상담과 부동산 종합 컨설팅·사업용 부동산 투자자문을 담당한다. 고객의 요청 시 자문 컨설팅 팀의 방문 또는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

법인 컨설팅의 경우는 기업승계는 물론 국내 리그테이블 1위 NH투자증권 IB부문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주 기별 종합 금융 솔루션 서비스(기업공개, 인수합병, 증자 등)를 제공한다.

각종 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컨시어지 개념의 멤버십 서비스는 고품격 세미나와 예술, 음악, 다이닝, 골프 등 다양한 주제로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범기 기자